

대추나무의 재배법 (1)

1. 서 론

대추나무는 우리나라에 완전 토착화된 유실수로서 영어로는 Jujube라 하여 서양에서도 널리 알려진 과일나무이며 학명은 *Zizyphus Sativa* Caertner로, 원래 이 나무는 아열대산 식물이었지만 현재로는 온대 중부에서 개량된 낙엽과수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엽에 중국을 통하여 전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중부 이북지역에도 일부 번식되고 있으나 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대추는 식량과일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기호 과일로서 주로 건과(幹果)로서 저장, 애용되고 있으며 옛날부터 제사나 각종 축하대사에 이용되고 있는 진귀한 과일이기도 하고 또한 한방에서는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대추나무는 재배법이 간단하여 농가의 공지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정원과수(庭園果樹)이기도 하다.

또한 대추나무는 목리(木理)가 단단하기로 유명하고 아름다워 특수가구나 목기제작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20년전 부터 피해를 주고 있는, 대추나무에 기생하는 일종의 바이러스 병 때문에 한때는 전국적으로 전멸 위기에 도달한 적도 있었으나 요사이는 많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꼭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2. 분포 및 재배적지

(1) 분포

대추나무는 내한성이 비교적 강한 유실수로만 과수류에 비하여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북지역까지 재배되기도 하므로 각 농촌지대에서는 정원이나 밭둑에 몇그루씩 식재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다.

중심분포 지역은 중부이북으로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등에서 많은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아산지방과 충북의 보은지방의 대추는 유명한데 이중 보은대추는 중군계통의 것으로 황해도의 평산 경북의 예천지방의 것과 같이 과일의 크기가 뚜렷하며 한약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보은지방에서는 이것을 여주라는 이름으로 보통 대추와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부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대추나무의 생육은 곤란하여 남부 도서지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

경기지방에서는 양주, 가평, 광주 지방에 많이 분포되고 있는데 양주의 광능, 금곡, 팔현리등은 대추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기후적인 영향으로는 내한성이 비교적 강한 수종이며 특히 건조한 기후에 적응력이 강한데 개화기인 6월중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수정이 안되어 낙과(落果)가 심하고 이러한 곳에서는 과일의 풍산이 되지 않고 있다.

기온관계는 비교적 내한성 수종이긴 하지만

최저기온이 -27°C 이하에서는 생육이 어려워 재배할 수 없으며 1월의 월평균기온이 -8°C 정도의 지역이 알맞다.

따라서 이북지역에서는 평안도 함경도의 해안지역에 일부 분포되고 있으며 내륙지방에서는 생육이 불가능하다.

(2) 적지

대추나무의 적지는 배수만 잘 되면 토질에 대하여 크게 가리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수충건추(水葱乾囊)란 말이 있는데 이는 대추나무의 생육에 있어 습기를 기피하는 것을 뜻하며 특히 개화기인 6월중에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생육 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추나무의 생육에는 사질양토가 가장 좋는데 자갈이나 모래가 다소 섞인 점질토양에도 심을 수 있어서 농가의 밭둑이나 산록경사지 등의 배수 양호한 곳은 재배가 무난하다.

즉 화강암이나 편마암이 풍화한 산의 중부 부이하의 토심이 깊고 부식질이 많으며 약간의 보수력이 있는 곳이면 적지라고 할 수 있다.

방위에 따른 기후적인 제약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경사지에서 태양광선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정 남서방향이나 겨울 찬바람에 의한 한해를 받을 북쪽은 방풍이 되지 않는한 가급적 식재지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있어서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부진하며 오히려 알칼리성에는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성화된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약간의 석회 사용이 필요하다.

이상 적지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육기간중에는 공중습기가 낮아야하며 6월의 개화기에는 건조한 곳이 개화 수정이 잘된다.

② 토양은 알칼리성 사질양토로서 유기질의 함량이 많으며 알맞는 토양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것.

③ 습기가 많은 저지대에서는 생육이 부진

하며 특히 대추나무를 전멸위기로 몰고 갔던 병의 Virus 발생이 심하므로 배수가 양호한 곳에 식재토록 할 것이다.

3. 품 종

대추의 품종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크게 개량된 것도 없으나 재래종은 알이 작고 일반적으로 서울대추라고 불리는 것은 알이 크고 원통형이며 단맛이 강하다.

대추는 주로 실생으로 번식시켜왔기 때문에 변종이 많아 통일된 것이 별로 없으나 일부 개량된 서울대추와 재래종인 멧대추에 대하여 그의 특성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추나무 (서울대추나무 *Ziziphus Jujuba varinernis* REHDER)

멧대추에서 개량된 것으로 잎은 계란 모양으로 엽연(葉緣)에는 톱니모양을 하고 있으며 잎의 크기는 2~5cm로 얇고 큰편이다.

나무의 가지는 퇴화되고 있으며 수세는 왕성하나 큰 교목으로 자라지는 않는다.

개화는 5~6월에 되고 수정되어 9월에 성숙한다.

과일은 길이 2~3cm의 크기로 타원형으로 과육이 두터우며 성숙시 갈색으로 변색하므로 채취시기를 알 수 있으며 식용에 알맞다.

(2) 멧대추(산대추과목 酸棗, *Zizyphus Jujuba* Mill)

재래종이라 일컫는 대추로서 중군의 야생종이 전래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되고 있는 품종이다.

대추나무(개량종)와 달리 잎연에는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으며 잎의 선단부에는 일반적으로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세가 완만하여 곧게 생육한다.

6월에 개화하여 수정이 되면 9월초에 성숙하여 추석명절에 멧대추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과일은 원형이며 그 크기가 작고 과육이 적은 반면에 과피가 두껍다.

멧대추의 결실의 하나는 장기 저장이 곤란한데 저장하기 위하여 건조를 지나치게 할 때에는 과피가 갈라져서 상품가치가 없어지게 돼

므로 일반적으로 수확후 바로 꺾대추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일반 개량종 대추는 씨의 발육이 불완전하여 연한데 대하여 꺾대추씨는 그 종피가 단단하고 이는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

4. 번식법

대추나무의 번식은 그 재배가 기업적으로대량 소요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량 계획 생산은 하고 있지 못한듯 하다.

번식은 보통 분얼법(分蘖法)이 실시되고 경우에 따라 파종법이 일부 실시된다.

분얼법에 의할 때는 대량 생산이 되지 못하는 불편은 있으나 분얼에 의할때에는 나무의 생장의 빠르고 3~5년이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하여 실생법에 의할 때는 대량 생산은 가능하나 발아가 불량하고 같은 계통의 품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결점이 있을 뿐아니라 결실연령이 분얼에 의할 때에는 3~5년이 되는데 대하여 파종법에 의할 때에는 분얼때보다도 3배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법식법은 이상 두가지법외에도 뿌리삽목(根插)도 실시하나 성적이 불량하여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실수종식은 어느 수종을 막론하고 접목에 의하여 번식시키고 있는데 대추나무는 접목활착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야생종이나 일부 실생묘에 접목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좋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추나무 접목법의 개발이 아쉽다.

따라서 대추나무 번식법인 분얼법과 실생양묘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분얼법

대추나무는 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사질양토가 적지인데 산록부나 자갈이 섞여 있는 발톱에서는 나무줄기에서 멀리 떨어진 지표면에 많은 대추나무가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어린 나무들은 토양조건이 좋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추나무는 지표면에 많은 측근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측근은 수관(樹冠) 폭이상

으로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멀리 밖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이와 같은 측근에서는 또 많은 새로운 가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고 있는데 나무가 자랄수록 경급이 좁어짐에 따라 비대하여 뿌리의 선단에서 지표를 뚫고 많은 움이 돌아나오게 된다.

분얼법은 이 새로히 돌아난 움을 어미나무로부터 분리 증식시키는 것인데 뿌리에서 나온 움은 적어도 1~2년생일 때 모수로 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점은 움에 새로운 뿌리를 약간 붙어 있어야 활착이 되는데 뿌리의 양이 많을수록 활착율도 높다.

그러나 움의 분리에서 뿌리를 많게 하다보면 어미나무에서 많은 양의 뿌리가 제거됨에 따라 어미나무의 세력이 약해지게 된다.

어미나무에서 분얼하는 어린나무의 수효에 따라 어미나무의 세력에 영향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수의 분얼을 하려 할때에는 전년가을 즉 성장이 정지되었을 때 어미나무에서 삽이나 낫으로 뿌리의 일부만 제거하여 어린나무의 성장과 활착을 미리 조정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뿌리의 부분을 봄에 잘라 이식하면 활착도 좋아지고 어미나무에 일시로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는 결과가 되기도 하므로 유리하다.

매년 나무에서 계속 돌아나는 움을 채취 증식하려면 어미나무 주위 2~3m 내외는 밭지말아야 자라는 움에도 좋고 새로운 움도 잘돌아나게 된다,

(2) 파종법

가을에 채취한 대추에서 과육을 제거한 종핵(種核), 즉 씨를 발려내어 이를 노천매장하여 월동시킨다.

대추씨는 세립종자가 아니고 그 종피가 단단한 경립종자인데 그대로 직파하면 발아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을에 완숙한 때추에서 빼낸 종자는 양지바른 약간 경사지에 지하 30~40cm 가량 넓게 종자분량이 전부 들어 갈만한 구덩이를 파고 매장을 한다.

매장법은 일반 대립종자의 6개월매장법과 같은데 종자의 2배가량의 모래와 섞어 상자가 있으면 구멍이 크기와 같게 만들어 상자의 상하에는 철망(鐵)으로 철하여 외부의 동물피해를 막고 충분한 지중습기의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상자를 사용한다.

지중습기 이용을 원활히 하기위하여는 구멍이 파는 장소가 점토질이면 물이 고이게 됨으로 종자가 굼게 되므로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에 매장함이 좋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노천매장을 실시한 종자는 3월 하순이나 4월 상순경에 파종을 한다.

파종량은 멧대추의 경우 1m²당 100알 즉 0.5홉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하여 대추나무의 종자는 1m²당 1.5홉 즉 멧대추의 3배인 300알을 파종한다.

상(床)은 평상으로 하여 조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상으로 규격상인 1m × 10m인 파종상으로 만든다.

가을에 기비를 넣고 충분히 갈아 엮은 다음 봄에 다시 갈아 상을 만든다.

대추나무는 뿌리가 유시에 길기 때문에 두 번 발가리를 하여 준다.

상이 준비되면 상의 길이에 따라 두줄로 골을 파고 조파를 하던가 줄을 파지 않고 점점이 씨앗을 놓고 손가락으로 눌러 주면 좋다.

씨뿌리기가 끝나면 상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짚을 깔아 준다.

특히 주의할 일은 작상할 때 우스프론과 같은 살균제는 반드시 살포하여 주어야 한다.

파종한 종자는 노천매장의 정도에 따라 발아도가 다른데 약 10일 전후면 일제 발아가 된다.

발아종료후 지속적인 제초와 6월 중·하순에 속효성 질소비료를 시용토록하면 성장이 좋다.

멧대추는 1년생으로 30cm, 대추나무는 15~20cm정도 성장하므로 다음해 봄에 평상으로 작상한후 관갈이를 하였다가 60cm정도 자란 2년생으로 소정적재 장소에 옮겨 심으면 된다.

식재와 관리 및 수확관계는 다음호에 미루기로 한다. <계속>



이천근역발매권

◎이천근역(CRD)특이약

청량리가추약품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597의32

(한국육계회 연락처) TEL. 96-8780

